



국민의 사랑을 받는 원자력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 그리고 대변인 제도

성풍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 서울대 원자핵공학 학사
- 미 MIT 원자력공학 석사, 박사
-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한국원자력학회 편집위원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 미국원자력학회 계속제어인간공학 부회장, 한국지부장 역임
-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91~)
-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15~)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부터 1년간 28대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을 맡게 된 성풍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국민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기를 원하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을까 하는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학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와 대변인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풀이가 나오는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원자력’에 가장 잘 맞는 풀이를 고르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원자력’이란 “국민이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원자력”이라는 뜻이 됩니다.

원자력의 가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국민의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아직 부족한 가치가 있으면 이 가치 만족을 위해 한국원자력학회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이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길만한 원자력의 가치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 ① 원전 및 원자력 기술 수출을 통한 국위 선양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실업 문제 해소 기여
- ③ 에너지 수입 감소를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 향상 기여
- ④ 저렴한 에너지 생산을 통한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발전 기여
- 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억제를 통한 국민 환경 개선 기여
- ⑥ 원자력 안전 및 안전문화 향상 노력을 통한 국민 안전 증진 기여
- ⑦ 원자력 현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안심 증진 기여
- ⑧ 원자력 관련 각종 은폐 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 신뢰 향상 기여

저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위의 가치들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원자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위에 열거한 가치 중 7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가치를 현재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에서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현재에도 잘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더욱 더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기 위해서 원자력산업이 잘 되는 일이라면 아주 힘든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가 '원자력 유관기관 협의회' 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번 가치인 '은폐 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 신뢰 향상 기여'는 역사적으로 원자력이 부패나 은폐 비리하고는 거리가 멀었으나 완벽을 위해 우리 원자력인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안심 증진 기여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원자력 현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안심 증진 기여”이고 이 가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원자력이 되기 위해 시급하게 노력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 달성을 위해 이번 원자력학회 회기에서는 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와 대변인제도를 만들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원자력에 관한 크고 작은 사회적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원자력학회에서는 이슈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들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중장기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대응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못해 학회의 의견과 관계 없이 (많은 경우 포퓰리즘에 의해) 일부 인사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원자력이 부당하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원자력학회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대처할 수 있는 학회 소통위원회를 만들고 그 소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동 대변인으로 두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위원회는 각 분야, 각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홍보협력이사 1인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초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이 생겼을 때 신속히 위원들 간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학회 임원들과의 의견 조율 후에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할 시' 언론이나 국민에게 대변인(소통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통해 학회 입



원전 시뮬레이터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 사랑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풀이가 나오는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원자력’에 가장 잘 맞는 풀이를 고르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원자력’이란 “국민이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원자력”이라는 뜻이 된다.

장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할 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입장이 정리되더라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학회에서는 대변인을 갖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단기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물리학회나 기계학회 같은 곳과 달리 원자력에는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안들이 꽤 빈번히 생기고 그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꼭 필

요한 경우가 제법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 28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어서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원자력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회의 노력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배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 회기에서는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대변인을 두어 일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